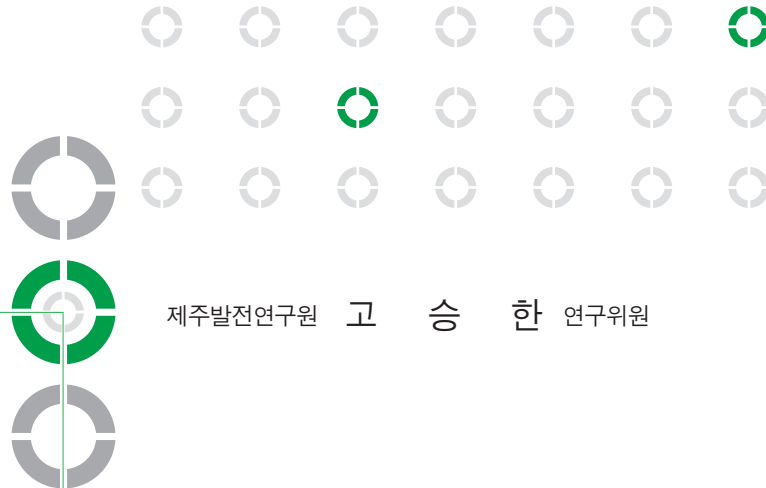


제주지역의 청년 해외취업 현황과 대응과제



제주발전연구원 고 승 한 연구위원



JDI

정책이슈브리프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정책이슈브리프 2016년 11월 15일 Vol. 257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발행인 : 강기춘

주 소 : 6314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53 TEL. 064-726-0500 FAX. 064-751-2168

- 제주발전연구원은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양한 정책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본 연구를 토대로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 대안들이 도출되어 도민의 삶의 질적 향상과 제주발전에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주지역의 청년 해외취업 현황과 대응과제

Contents

- I. 문제 제기
- II. 청년 해외취업 활성화의 주요 정책 현황
- III. 제주지역의 청년 해외취업 실태와 이슈
- IV. 제주지역의 청년 해외취업 활성화 대응과제

I. 문제 제기

- 고용없는 성장, 노동시장의 유연화, 그리고 사회 양극화 등이 확산되는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청년들의 삶은 취업의 어려움과 고용 불안으로 힘든 일상을 영위해 나가고 있음.
- 국내 경제성장률이 2~3%대에 머물러 있고,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 6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10.4%에 이르렀음(통계청, 2016).
- 청년실업 문제 해소와 고용촉진 활성화는 국정 과제의 중요한 아젠다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및 지자체들은 각종 청년 일자리 창출과 취업 활성화 정책 사업들을 추진·지원해 오고 있음.
 - 국가적 차원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정책 활성화를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제정(2013. 5. 22)하여 2014년 1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서울특별시가 일찍이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기본 조례」를 제정(2015. 10. 8)하였고, 2016년 1월 7일에는 「서울특별시 청년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2015. 11. 18)하였고, 2016년 6월 22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청년취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청년문제 전반에 대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특히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3. 2)로 K-Mov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글로벌 스펙초월 취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열정·잠재력 있는 청년을 선발하여 전문가 멘토링·맞춤형 교육훈련 등을 통해 인재로 양성한 후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하였음.
 - 「K-MOVE 포털」을 구축·운영하여 현지 일자리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통해 원스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 「해외취업장려금제도」를 통한 현지 정착지원과 해외 벤처캐피탈의 국내 지원 및 로스쿨생 등의 해외 법률분야 취업도 지원코자 하였음.
- 정부는 2014년부터 청년들의 해외인턴 사업의 문제점(취업연계 부족, 무급인턴 발생, 대학생 중심의 인턴, 양질의 인턴기업 확보 어려움 등)을 개선하여 취업연계를 강화하여 해외취업률을 상승시켜 나가고 있음.
 - 고용노동부(2015)에 따르면 청년 해외취업률이 2012년에 4.4%, 2013년 7.3%, 그리고 2014년에 28.6%로 증가하였음.
- 정부의 청년 해외취업지원 사업에 힘입어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년부터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인턴·취업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이를 위해 도내 대학교와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지원해 오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들은 주로 대학이나 특성화고에 예산지원을 하고 각 사업 대상 기관들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 제주지역의 대학들은 주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외인턴 혹은 해외연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인턴이나 연수를 마치고 해외 인턴기업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지 않음. 그래서 대학생 해외인턴 혹은 연수가 취업을 위한 소위 ‘스펙 쌓기’에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취업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중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본 글에서는 제주지역 청년들이 참여하는 해외인턴 및 연수사업 현황 그리고 해외취업 실태를 살펴보고, 동시에 여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제주지역의 청년들이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한 대응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함.

II. 청년 해외취업 활성화의 주요 정책 현황

1. 해외취업 현황

- 국내에서 취업을 원하지 않고 해외에서 자신의 열정과 능력을 발휘하려는 청년들이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연도별 해외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으나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표 1. 참고).¹⁾

〈표 1〉 연도별 해외취업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해 외 취 업		
	일선취업자	연수취업자	계
2010	570	2,149	2,719
2011	505	3,552	4,057
2012	607	3,400	4,007
2013	651	956	1,607
2014	657	861	1,679
2015*	329	399	1,002

출처 : 관계부처 합동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방안」 2014. 11. / 2015. 11. 한국산업인력공단 「내부자료」 2015. 재인용

주 : 2015년 해외취업 현황은 7월 기준이고, 전체 해외취업 현황에서 인턴취업, 성공장려금, 민간일선 부문은 제외되었음을 밝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면 전체 해외취업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1) 해외취업 지원사업에는 대부분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일반인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

- 2010~2012년 사이에 해외취업자수가 47.4%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에 2014년 10월까지 68.2% 감소하였음. 이처럼 감소한 이유는 해외취업 사업 지원 신청에서부터 단순노무직 배제와 초단기 비자 배제 등을 고려하였기 때문임. 이는 낮은 질의 해외 일자리를 가능한 초기부터 배제하는 데서 비롯됨.
- <표 2>는 국가별 해외취업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일본, 호주, 미국 등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2010년 이후 증가 추세였으나 2013년 이후 급격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싱가포르와 베트남에서는 해외취업자가 거의 줄어들지 않고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해외취업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 싱가포르, 호주, 미국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 국가별 해외취업 현황

(단위 : 명)

구분	일본	싱가포르	호주	미국	중국	캐나다	베트남	UAE	카타르	기타	합계
2010	228	72	505	70	654	317	19	-	-	854	2,719
2011	326	145	976	174	1,078	783	18	-	-	557	4,057
2012	323	178	1,137	197	472	944	26	-	-	730	4,007
2013	296	116	307	97	76	219	17	-	-	479	1,607
2014	339	249	175	117	138	79	-	50	12	520	1,679
2015	632	364	75	640	199	58	-	158	24	753	2,903

출처 : 관계부처 합동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방안」, 2015. 11. <http://news.heraldcorp.com>

주 : 2014년 이후 자료에서 국가 구분에서 베트남이 기타로 통합되고, 기타에 있던 UAE와 카타르가 별도로 구분됨.

- 2013~2015년 사이에 직종별 해외취업 현황을 보면(표 3. 참고),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한 직종은 IT와 사무·판매·서비스 관련 분야이고, 반면에 의료·보건분야 그리고 건설·토목 관련 직종에서는 취업자 수가 커다란 증감 없는 실정임.
 - 특히 사무·판매·서비스 관련 분야의 취업자 수가 2013년에 1,189명인데 2015년에는 2,151명으로 80.9% 증가하였음. 이는 2015년 전체 해외 취업자 가운데 74.1%를 차지하고 있음.
 - IT 분야 해외취업자가 2013년 136명인데 2015년에 335명으로 146.3% 증가하였으나 2015년 전체 취업자 가운데 11.5%를 차지하고 있음.



〈표 3〉 직종별 해외취업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607	1,679	2,903
IT	136	216	335
의료 분야	20	11	29
장치 기계 · 조립 · 금속 분야	36	41	39
전기 및 전자 분야	31	33	27
건설 · 토목 분야	54	69	65
사무 · 판매 · 서비스 분야	1,189	1,210	2,151
기 타	141	99	257

출처 :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https://www.worldjob.or.kr>

2.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현황

- 정부 차원에서 청년들을 위한 해외취업 지원사업은 주로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에서 추진되고 있음(표 4. 참고).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은 교육부의 '세계로 프로젝트'가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2015년에 통합되면서 현재 3개 사업이 운영 중에 있음.
 -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가 추진하는 해외취업 지원사업은 2013년에 190억원, 2014년 271.5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2015년에 367억원, 2016년에 453.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부처는 고용노동부로 2016년에 420.9억원, 다음으로 국토교통부가 32.7억원, 그리고 산업통상부가 4.0억원으로 나타남.

〈표 4〉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처	사업명	2013		2014		2015	2016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예산액
고용노동부	해외취업지원 (연수+알선)	22,501	13,863	23,729	20,289	33,031	42,098
교육부	세계로 프로젝트	0	0	3,100	3,045	0	0
국토교통부	해외건설현장 훈련(OJT) 지원	10,820	4,792	3,420	3,420	3,270	3,270
산업통상부	글로벌취업 상담회	350	350	400	400	400	400
소 계		33,671	19,005	30,649	27,154	36,701	45,368

출처 : 고용노동부 내부자료(2015)

■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은 사업 유형에 따라 실적 지표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표 5. 참고).

- 고용노동부의 해외취업지원에는 연수인원과 알선으로 구분되고, 국토교통부는 훈련인원, 그리고 산업통상부는 상담회에 참여한 취업인원을 나타내고 있음.
- 2016년도 고용노동부의 해외취업지원(연수+알선) 수는 6,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현장훈련(OJT) 지원에 300명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표 5〉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사업실적

(단위 : 명)

부 처	사업명	2013		2014		2015	2016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목표
고용노동부	해외취업지원(연수)	2,000	1,696	2,200	1,690	5,500	6,000
	해외취업지원(알선)	800	651	700	734		
교육부	세계로 프로젝트	0	0	450	491	0	0
국토교통부	해외건설현장 훈련(OJT) 지원	400	424	300	335	300	300
산업통상부	글로벌취업 상담회	0	57	65	81	80	0

출처 : 고용노동부 내부자료(2015)



- 정부 부처가 추진하는 청년 해외취업 지원 사업은 결국 청년 해외취업자 수를 증가시키는데 근본적 목적이 있는 만큼 해외취업 건수는 2013년에 2,088명, 2014년에는 2,445명으로 증가하였음. 2016년에 청년 해외취업 성과 목표는 3,765명으로 정하고 있음(표 6. 참고).
 - 해외취업 건수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정부는 해외취업 성과의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음. 그래서 인프라 투자, 해외취업 지원 인력의 DB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취업성과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음.
 - 해외취업 사업의 성격이 달라 각 부처가 추진하는 취업성과를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으나 일단 양적 지표로만 보았을 때, 산업통상부의 사업은 10억원당 202.5명, 국토교통부 98.0명,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78.6명 취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표 6〉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취업성과(I)

(단위 : 명)

부 처	사 업 명	2013성과	2014성과	2015성과	2016목표
고용노동부	해외취업지원(연수)	956	861	1,183	2,100
	해외취업지원(알선)	651	734	846	1,180
교육부	세계로 프로젝트	0	434	0	0
국토교통부	해외건설현장 훈련(OJT) 지원	424	335	300	400
산업통상부	글로벌취업 상담회	57	81	80	85
소 계		2,088	2,445	2,409	3,765

출처 : 고용노동부 내부자료(2015)

〈표 7〉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취업성과(II)

(단위 : 명, %)

부 처	사업명	지원인원(명)	해외취업자 인원(명)	해외 취업률(%)
고용노동부	해외취업지원(연수)	1,690	861	50.9
	해외취업지원(알선)	734	734	100.0
교육부	세계로 프로젝트	491	434	89.4
국토교통부	해외건설현장 훈련(OJT) 지원	300	335	116.7
산업통상부	글로벌취업 상담회	65	81	124.6
소 계		3,280	2,445	74.5

출처 : 고용노동부 내부자료(2015)

- 정부 부처가 청년 해외취업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를 보면(표 7. 참고), 전체 청년 해외취업 사업에 참여한 3,280명 가운데 해외취업자가 2,445명으로 해외 취업률은 74.5%로 나타남.
 - 고용노동부의 해외취업지원(알선) 지원 사업에서는 100% 취업한 결과를 보이고 있고, 국토교통부의 해외건설현장훈련(OJT) 지원사업의 경우 취업률이 116.7%, 산업통상부의 글로벌취업상담회 사업에 의한 취업률은 124.6%를 보여주고 있음.

3. 청년 해외취업 정책의 문제점

- 청년 해외취업의 양적 성장에 치중
 - 청년 해외취업 지원 정책들이 대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취업을 확대하려는 측면에서 일자리의 질적 측면보다는 양적 성장에 치중하였음.
 - 청년 해외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목표 달성에 서둘러 정책 지원에 대한 모니터링이 부족하였음.
- 국가 및 지역별 맞춤형 청년 해외취업 전략의 부재
 - 청년들이 일하기를 원하는 국가와 지역 그리고 직장 등의 특성을 고려한 취업전략들이 사전에 수립되지 못하여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함.
 - 국가 및 지역별 맞춤형 취업전략의 부재로 현지에서 청년 취업자들은 기대와는 다른 상황이 발생하여 실망하거나 조기에 포기하여 귀국하는 사례들도 발생함.
- 공공 및 민간기관(단체)의 해외취업 알선 기능의 취약
 - 청년 해외취업은 국내와는 달리 언어, 임금, 근로환경, 주거, 안전 등 복잡한 문제들이 내재되어 사전에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인력이 필요함.
 - 해외취업 희망 청년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해외취업 준비에 어려움이 있음.
-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 미흡
 - 청년 해외취업 인력을 구인하는 국제인력리크루트회사와 정부 간의 협업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지 못함.
 - 글로벌인력리크루트사와 국내 공공 및 민간인력 회사들 간에 협력 네트워크가 미약함.
-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 추진
 -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은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지자체는 집행하는 체계로 운영되다 보니 지역 특성과 해외취업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 해외 일자리 수요에 대한 체계적 대응 미흡
 - 한국의 청년들이 취업이 가능한 해외 일자리 발굴 및 수요에 대한 예측이 가능토록 충분한 자료와 정보 없이 추진되었음.
 - 해외취업이 주로 현지 한인기업 진출에 편중되어 외국기업 등 진출 다변화에 한계가 있었음.
- 해외취업 희망 해당 국가와 부처 간의 충분한 협의 부족
 -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비자취득과 자격상호인정 등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양국 간의 긴밀한 협의가 부족함.
 - 비자 문제 등이 제대로 해결 안된 경우 해외에서 꿈도 펴지 못하고 귀국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
- 해외취업의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미흡
 - 청년들이 해외취업을 희망하면 상당 기간 동안 체계적 준비(어학, 자격증, 직무능력 등)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함.
 - 해외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에 상담 및 정보제공 인프라 구축이 부족한 상태임.

4. 청년 해외취업 촉진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 정부는 청년 해외취업 정책의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해외에서 청년들이 꿈을 펼치고, 아울러 직업적 경력 쌓기와 고용촉진을 위해 「청년 해외취업 촉진대책」을 2015년 11월 말에 발표하기에 이룸(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5. 11. 27).
- 정부는 “더 많은, 더 좋은 청년일자리, 해외에서도 길을 찾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매년 1만 명을 해외에 취업시키려는 목표를 세움.
- 정부는 청년 해외취업 촉진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해 놓고 있음.
 - K-Move 각 사업 간 연계 강화 및 분류·역할의 명료화
 - 국가별·직종별 맞춤형 전략에 의한 고급 전문 직종으로 다양화
 - 해외취업 준비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및 민간 알선 시장 적극 육성
 - 자격 및 비자 등 해외진출 애로요인 해소
 - 대학의 해외취업지원 역할 강화
- 정부는 청년 해외취업 촉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음.

① 국가별 직종별 맞춤형 지원

- 선진국 대상으로는 틈새공략형 전략으로 전문직종과 특수기능직 분야에 취업을 강화함.
- 싱가포르, 홍콩 등의 국가를 대상으로는 교두보형 전략으로 초급경력자를 알선함.
- 신흥국 대상으로는 도전적 일자리형 전략을 펼쳐 해외법인 등의 중간관리자 양성을 확대함.
- 중동 국가에는 신시장 개척형 전략으로 해외수주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보건·의료, 엔지니어 분야의 인력을 취업시킴.

②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월드잡 플러스를 확대·개편하고 모바일 앱을 구축함.
- 대학의 창조일자리센터 상담 기능을 강화함.
- 해외취업 가이드를 마련하고 국가별 설명회를 상시 개최함.

③ 해외취업 인프라 구축

- 해외진출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자격 상호인정, 비자 완화 등 해외취업 진출국가와 협조 강화
- 해외취업 실적 등을 포함하여 대학 평가에 반영함.
- 해외진출 총괄·조정·평가 체계를 구축함.

④ 공공 및 민간 취업알선 시장 육성

- 민간 해외취업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함.
- 한국산업인력공단과 KOTRA(대한무역협회)와 협업 강화함.
- 민간의 우수기관을 선별·육성함.



III. 제주 지역의 청년 해외취업 실태와 이슈

1.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현황

- 제주지역에서도 정부의 청년 해외취업 촉진 정책과 연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도내 대학들이 협력하여 도내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위한 정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
-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 사업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특징지을 수 있지만,²⁾ 청년 해외취업 촉진은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인턴 사업과 대규모 투자사업 연계 해외취업 지원사업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음.
-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인턴 사업은 제주도내 대학생 및 특목고 학생들에게 어학연수와 전문분야 기술·지식 습득기회를 제공하여 국제적 마인드와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임. 이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 가운데 해외취업을 하는 기회를 갖게 됨.
- <표 8>은 제주지역의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취업지원사업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7년 동안 (2009~2015년) 전체 사업비 총액이 6,869백만원이고, 지자체 지방비로 지원한 총액은 1,913백만원으로 27.9%를 차지하고 있음.
 - 전체 사업비가 2009년에 578백만원이었으나 2015년에 1,081백만원으로 늘어나 87.0% 증가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매칭 지원액은 2009년에 176백만원이었으나 2015년에 219백만원으로 24.4% 증가하였음.

<표 8> 제주지역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취업지원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년 도	사업비	도 지원액	연수인원	취업인원	비고 (나라별 취업인원)
총 계	6,869	1,913	742(404)	232	호주 126, UAE 33, 일본 22, 피지 10, 캐나다 9, 미국 1, 독일 1, 뉴질랜드 1
2009	578	176	58	-	-
2010	757	306	68	-	-
2011	1,005	250	90	-	-
2012	1,299	425	142	90	호주 55, 일본 14, UAE 12, 캐나다 9

2)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국비에 지방비가 매칭되어 추진되고 있음. 2016년도 전체 사업비가 9억6천여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제주대 산학협력단, 제주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제주평생교육진흥원 등이 사업선정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음. 이들 기관들은 제주미래전략사업 취업연계 인력양성사업, 제주서비스산업 융합맞춤형 고용창출 사업, 고용혁신추진단 구성 운영, 농수축산물 홍보 마케팅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을 각각 수행하고 있음.

년 도	사업비	도 지원액	연수인원	취업인원	비고 (나라별 취업인원)
2013	1,126	312	132	68	호주 39, UAE 11, 피지 10, 일본 8
2014	1,023	225	117	45	호주 32, UAE 10, 미국 1, 독일 1, 뉴질랜드 1
2015	1,081	219	135	29	※ '16년 6월 이후 취업자 최종 확정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내부자료(2016)

- 글로벌 인재양성의 연수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2009~2015년 사이에 742명이고, 여기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에 의한 참여인원은 404명으로 나타남.
 - 글로벌 인재양성 연수사업의 참여인원이 2009년에 58명에서 2015년에 135명으로 늘어나 132.8% 증가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취업 지원사업으로 해외취업을 한 취업인원은 2011년까지는 전무하였음. 그러나 2012년에 처음으로 90명이었으나 계속 감소하여 2015년에 29명에 그쳤음.
- 지난 7년 동안 국가별 취업인원을 보면, 제주 청년들이 가장 많이 취업한 국가는 호주(126명), 다음으로 UAE(아랍에미리트연합)(33명), 일본(22명), 피지(10명), 캐나다(9명) 순으로 나타남.
- 제주도내 교육기관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취업 지원사업은 주로 제주도내 대학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표 9. 참고).

〈표 9〉 2015년 교육기관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취업지원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기 관	지원유형	지원액	연수(취업) 인원	대상국가
총 계		219	68	
제주대학교	대학 자체 추진	16	4	호주
제주관광대학교	대학 자체 추진	19	11	호주
제주한라대학교	한국산업인력공단 K-Move 연계	109	42	호주, 중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체 추진	75	11	호주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내부자료(2016)



- 제주도내 3개 대학이 2015년에 대학생 해외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57명의 학생을 해외에 취업 (혹은 연수)시킴.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자체사업으로 11명의 학생을 연수시켰음.
 - 제주한라대학교는 정부가 추진하는 K-Move 사업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하여 호주와 중동국가에 42명(61.8%)의 학생이 연수 혹은 취업한 것으로 나타남.
- 제주지역에 대규모 투자사업과 연계한 청년 해외취업 추진은 ‘제주신화역사공원 신설 복합리조트 취업연계형 싱가포르 서비스 전문가 실무 양성과정’으로 제주 청년들을 선발하여 투자기업이 해외 (싱가포르)에서 3개월 동안 어학 및 기본 직무연수 교육을 시키고 난 후 현지 리조트 관련 기업에서 일정 기간 취업 후 제주로 복귀하여 투자기업에 취업하는 프로그램임(표 10. 참고).³⁾

〈표 10〉 제주지역 대규모 투자사업 연계 해외취업 지원사업 현황

(단위 : 명)

구 분	운영기관	대 상	교육(운영)기간	주요 내용	
싱가포르 서비스 전문가 해외연수	1차	람정제주개발(주)	학생 및 일반인 57명	'15. 12. 19 ~ '17. 8	해외연수 후 취업
	2차	람정제주개발(주)	학생 및 일반인 37명	'16. 8. 1 ~ '17. 7. 28	
	3차	한국산업인력공단, JDC	학생 및 일반인	'16년 하반기	
	특성화고	람정제주개발(주)	학생 및 일반인	'16년 하반기	
	람정 아카데미	람정제주개발(주)	일반인, 대학생, 고등학생	'17. 3. ~ '18. 2	단기직무교육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내부자료(2016)

- 제주지역에 대규모 투자로 인한 개발사업(예, 신화역사공원리조트개발) 과정에서 자치단체 · 공공 기업 · 국가사업과 투자기업이 협력하여 도내 청년들이 해외연수 및 일정기간 해외취업 경력을 쌓고 난 후 제주에 돌아와서 양질의 일자리인 초급관리자 또는 경력사원으로 취업하는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임.
- 이는 자치단체에서 투자기업 대상 투자승인 조건으로 도민고용 80% 채용을 부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투자기업들이 지역에서 우수인재를 찾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결함과 동시에 제주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선점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3) 싱가포르 서비스전문가 해외연수사업은 일정기간 해외취업 후 국내복귀를 전제로 한 점에서는 엄격한 의미의 해외취업 촉진 프로그램이라 할 수 없음.

2. 제주지역 해외취업 지원사업의 이슈

■ 중앙정부의 청년 해외취업 지원 K-Move 사업 의존

- 제주지역에서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은 주로 정부가 추진하는 K-Move 사업에 의존하고 있음.
- K-Move 사업에 의한 예산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예산 규모의 영세성

-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자체 지원 예산액이 2천만원 수준으로 아주 적은 편임.

■ 제주청년 해외취업 대상 국가의 편중성

- 제주지역의 청년(특히 대학생)들이 해외취업 하는 대상 국가가 대체로 호주, UAE(아랍에미리트 연합), 일본 등에 국한되어 있음.
- 물론 K-move 스쿨 사업 연계의 경우 해외취업 조건에 맞는 임금 및 직종을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다양한 나라를 선택하는데 한계는 있음.

■ 행정, 대학, 교육청 등의 청년 해외취업 지원 시너지 효과 창출 미흡

- 현재 도내 각 기관들이 국비 혹은/그리고 지방비를 지원받아 사업들을 소규모로 각자 추진하는데 타 지역에 비해 협력체계는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음.
- 그러나 청년 해외취업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들이 상호 협력하여 예산 확충과 새로운 사업 발굴을 통해서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제주지역 청년 해외취업률의 저조

- 2015년에 도내 청년(대학생 포함)들 중 해외취업 연수사업의 참여자들 가운데 실제로 해외취업 인원수가 적음.
- 전체 연수 참여자 가운데 21.5% 만이 해외취업을 한 상태임.
- 다양한 해외연수를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을 통해서 해외에도 제주청년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와 해외취업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IV. 제주 지역의 청년 해외취업 활성화 대응과제

■ 제주지역 청년들이 해외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동시에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과 연계되어 도내 관련 기관(제주특별자치도, 도내 대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민간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해 나갈 때 제주청년들의 해외취업 기회 확충과 고용촉진이 보다 확대될 것임.

■ 여기서는 향후 제주지역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한 정책 대응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① 제주지역 청년 해외취업 종합대책 수립

■ 정부가 「청년 해외취업 촉진 대책」을 2015년 11월 27일 발표하여 청년의 해외취업 지원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처럼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지자체 자체적으로 제주청년의 해외취업과 고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이 요구됨.

■ 제주지역의 청년 인력특성(전공영역, 자격증 등), 해외취업 동기와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함.

② 제주청년의 해외취업 수요조사 실시

■ 제주지역의 청년들이 얼마나 해외취업을 선호하고 있는지, 선호하면 어떤 국가 및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직종에 취업을 원하는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매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청년 해외취업 수요조사 실태 결과에 의한 예측 가능한 해외취업 제고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③ 국가 및 지역별 해외 청년 인력수급 동향 분석 필요

■ 제주청년들이 아무리 해외취업을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해외에 일자리가 없으면 취업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국가 및 지역별로 제주청년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수요에 대한 동향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음.

■ 그러기 위해서는 각 국가별로 해외인력 수급에 대한 법과 제도(비자, 자격증 상호인정 등)를 파악하고, 아울러 직종과 전문성 등도 고려하여 해외취업이 실현가능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임.

④ 청년 해외취업의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필요

■ 제주지역에서 청년 해외취업은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에서 소규모 예산과 인력으로 지원하거나 혹은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단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상황에 있음.

■ 행정은 도내 대학에 예산 지원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음.

■ 따라서 제주지역 청년들이 보다 종합적 지원체계 하에서 상담, 준비, 교육 및 현지 실습 등의 과정을 거쳐 해외취업의 성공을 가져 올 수 있도록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⑤ 공공 및 민간기관(단체)의 청년 해외취업 협력 네트워크 강화

■ 청년 해외취업은 행정에서 예산 지원 혹은 대학의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 분명 한계에 부딪히게 됨.

- 청년 해외취업은 해외에 있는 기업체들이 필요한 해외 인력을 채용하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도 지원이 필요함.
 - 예컨대, 도내의 수출기업들이 해외 기업들과 연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을 통해서 해외 기업의 해외인력 채용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혹은 도내 경제계(경영자총연합, 제주상공회의소 등)가 청년 해외취업 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데 적극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음.
 - 람정개발주식회사(주)의 싱가포르 서비스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처럼 민간부문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됨.

⑥ 청년 해외취업 지원자에 대한 재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 청년 해외취업은 다양한 직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자 욕구에 맞추기 위해서는 해외 취업 지원자의 지원 분야(직종 등)를 고려하여 재교육훈련을 시켜야 할 것임.
- 청년 해외취업 대상자의 재교육훈련은 도내 대학, 전문직업훈련기관, 폴리텍대학 등 상호 협력하여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해 나갈 필요가 있음.

⑦ 정부의 청년 해외취업 담당 부서와의 연계 강화

-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연수취업, 알선취업, 인턴취업, 그리고 민간알선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예산 지원을 해 나가고 있음.
- 국가의 해외취업사업(특히 K-move 사업)과 연계된 어학연수는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지원되고 있고, 해외취업 기간 동안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예산으로 체재비 등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앞으로 제주청년의 해외취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담당 부처와 정보 교류 및 지원체계 협력을 보다 강화하여 제주청년들이 공공 및 민간지원(연수, 알선, 인턴 등)을 통한 해외취업 기회를 많이 가지도록 해야 할 것임.

⑧ 청년 해외취업 지원 예산액 확충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에 정부의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에 2억여원을 매칭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고, 도내 일부 대학들은 2천만여원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외취업 지원 예산액은 6억원(글로벌 해외인턴사업 3억, 싱가포르 해외인력양성사업 3억원)을 지원하고 있음.
- 따라서 제주청년들이 해외에서 취업기회 확대와 고용촉진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청년 해외취업 지원 사업예산이 대폭 증액되어야 할 것임.

⑨ 청년 해외취업 지원 전문인력 확보

- 행정, 대학 그리고 일자리 창출 및 지원 민간기관(단체)들은 청년들의 국내 취업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취업 관련하여 일하는 인력이 아주 부족한 실정임.



- 특히 대학에서 대학생 해외취업 업무를 보직으로 맡아서 해오다가 더 이상 맡지 않으면 새로운 담당자가 업무를 익히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 상황임.

- 청년 해외취업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서는 해외취업 담당 전문가를 배치하여 전문적 상담과 준비 등을 하도록 함. 그래서 도내 대학에서 청년 해외취업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안정적·체계적 지원을 해 나가야 할 것임.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15),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2015), 「내부자료」
- 고용노동부(2015),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정책과제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2016) 「내부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6)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 중간보고서(안)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13. 2), 「박근혜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 통계청 (2016), 「국가통계포털 KOSIS」
- 인터넷 사이트 : <http://news.heraldcorp.com>
<http://www.worldjob.or.kr>

※ 본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제주발전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내용 문의 : 제주발전연구원 고 승 한 연구위원 (T. 064-726-6145 / soc628@jdi.re.kr)

JDI 정책이슈브리프

제주발전연구원

Jeju Development Institute

6314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53

Tel. 064-726-0500, Fax. 064-751-2168

www.jdi.re.kr

